

경계 넘어 퍼지는 나눔, 지역 복지의 시너지

재능기부 스토리

다문화가정에 에어컨 설치

보호종료 청년 LH 입주 앞두고, 필수 가전 마련
오란다 만들며 웃음꽃... 수떡공예 재능기부까지

광주공유센터와 장성군 가족센터 간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공유센터 이용 대상이 광주광역시 시민에서 전남광주 특별시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군 가족센터와 협약을 맺고 공유문화 활성화와 공유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대상 사업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지원하고, 가족 건강성 향상과 가족 문제에 대한 통합적·예방적 서비스 연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성군 가족센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을 역전로 199-10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센터장님과 직원분들은 장성군민들의 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장성군 가족센터를 운영해온 이 센터장님께서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양 기관이 잘 협력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번 협약식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빛고을사랑터’ 김성희 팀장님과 공형정 주무관님께서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전남광주 통합을 계기로 장성군 가족센터와 광주 공유센터가 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기업인 수떡공예교육문화원 최수옥 대표님께서 모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오란다 체험을 해주셨습니다.

오란다를 직접 만들어 맛보는 체험 활동을 어르신 30여 분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직접 만든 오란다를 드시며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수떡공예교육문화원 최수옥 대표님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체험 활동을 진행해주신 수떡공예교육문화원 최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세 청년에 대한 지원 소식입니다. 김모 군은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보호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군은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



광주 공유센터와 장성군 가족센터(이정문 센터장)와 업무협약식 모습.

며, LH 임대주택이 배정되어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하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했습니다.

특히 생활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침대, 책상,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물품이 없는 상태였지만, 현재의 경제 여건으로는 자력으로 구입하기 어려워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김 군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의자 세트는 광주재능기부센터에서 지원했고,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 세탁기를 구입해 설치했습니다. 그룹홈에서는 냉장고를 지원했습니다.



광주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으로 설치된 에어컨.

지원 비용은 김셋별님께서 광주 청년센터를 통해 기부한 기부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김 군은 독립하려니 막막했는데, 이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학교도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 군이 앞으로 성인으로서의 삶을 잘 설계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바랍니다. 도움 주신 김셋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3일 광주공유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수떡공예교육문화원 최수옥 대표의 오란다 만들기 체험활동.

광주의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장터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날 장터를 통해 총 57만 2000원의 기부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부금을 통해 다문화 가정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으로 어머니와 중학생 김모 군, 초등학생 김모 양, 두 살 된 막내딸까지 네 식구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그 이후로는 3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는데, 최근 어머니의 개인 사정으로 막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일하러 가면서 김 군과 동생만 남

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필리핀에서 외할머니가 한국으로 건너와 손주들을 보살피며 지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은 방 1칸과 간이부엌으로 이뤄진 다세대주택으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문과 창문에 방충망이 없어 파리와 모기가 들어오고, 환기가 되지 않아 좁은 방에 열기가 가득 차면서 여름철 한낮에는 집 안에서 지내기 힘들어 오히려 밖에 나가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을 방문해 살펴보니 선물이 한 대로 더위를 견디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너무 더워 땀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김 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집안이 너무 무더워 힘들다며 에어컨이 있으면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모임에서 모인 기부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남매는 집에만 오면 더워서 들어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시원한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외할머니와 생활하고 있는 남매가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도움 주신 광주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대표
▶문의사항 (기타 문의도 가능)
“광주재능기부센터, 나눔 N JOY”
전화 : 062-431-0918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